

## 지역 특색 반영한 골목 살리기에 박차

경기도 관광과 지역특화관광팀  
2020. 10. 9.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20. 10. 24.

###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관광명소화 추진 본격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0년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소핑로 숲씨로 맵시로 등을 선정하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추진 계획

대상지	주요 사업 내용
수원 화성 행리단길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골목 설치미술 등 포토포인트 조성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미식투어 상품(세계음식 쿠킹클래스) 개발 및 시범투어 운영, 다문화 주민 음식문화해설사 육성 교육
평택 신장소핑로 숲씨로 맵시로	양복장인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팝업 전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북변동 아트골목(설치미술)사업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아트힐링캠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포천 이동갈비 골목	지역 서점 운영(갈비골목의 추억 여행),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양평 청개구리아 이야기 거리	청개구리 골목 벽화 개선, 청개구리 마켓 상표 새 단장

출처: 경기도, (2020). 도,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등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10월 9일 보도자료.

### 서울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지속 추진

서울시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개 대상지\*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사업이다. 사업지마다 10억 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 마련과 소규모 사업(2억 6,000만 원)을 추진하고,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과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7억 4,000만 원)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마포구 삼개로1길 일대에는 지역의 ‘도화낭자 이야기’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골목길을 명소화하고, 광진구 군자로3길 일대에서는 기존 지역축제 및 캠퍼스타운(건국대, 세종대) 사업과 연계한 골목길 내 상권 개선사업 등이 진행된다.

\* ①중구 다산로36나길 일대 ②광진구 군자로3길 일대 ③동대문구 제기로11길 일대 ④중랑구 중랑역로9길 일대 ⑤성북구 종암로16길 일대 ⑥서대문구 수색로2길 일대 ⑦마포구 삼개로1길 일대 ⑧양천구 목동중앙북로·목동중앙북로16길 일대 ⑨강서구 까치산로4길 일대 ⑩금천구 금하로24길 일대 ⑪영등포구 영신로9길 일대 ⑫관악구 신림로56길 일대 ⑬강남구 테헤란로77길 일대 ⑭강동구 구천연로100길·상일로5길 일대 ⑮강동구 성안로27길·31길 일대